

社說

호남 반도체밸리 발목잡기 곤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광주에 반도체 생산기지를 구축한다. 후공정 패키징 공장을 넘어 핵심 생산라인까지 조성되면 남부권 반도체 혁신 밸리가 생기게 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SK그룹 최태원 회장(19일)에 이어 삼성그룹 이재용 회장(25일)과 반도체 공장 투자에 대해 논의했다. SK그룹은 반도체 공장과 더불어 신재생에너지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투자까지 검토하고 있다.

대기업은 그동안 서울에서 멀다는 이유로 광주시와 전라남도에도 공장을 건설하길 꺼렸다. 그러나 태양과 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가 풍부한 호남은 물과 전력 소모가 큰 반도체 공장에 적합한 입지를 갖췄다. 삼성과 SK의 결단은 국토 균형 발전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기업의 통 큰 결단에 발맞춰 정부와 지자체는 인허가와 함께 전력과 용수 공급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SK하이닉스는 용인 반도체 공장에서 사용할 전력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경기도는 전력 자립도가 59%대에 불과한데, 충남과 충북 등은 송전탑 건설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남은 전력 자립도가 200%를 훌쩍 뛰어넘었다. 하지만 들쭉날쭉한 신재생에너지에만 기댈 수는 없다. 첨단 반도체 공장은 어떤 이유로든 가동이 중단되면 피해가 막심하기 때문이다. 이번 기회에 영광 한빛원전의 활용에 대한 논의도 꼭 필요하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위험한 폭주라고 논평했다. 후공정 중심으로 거론되던 투자 구상이 전공정 핵심설비 확대된 건 청와대의 압박이자 관치 경제의 부활이라고 주장했다. 전남광주특별시 출범에 맞춘 정부의 강요란 취지다. 지역경제가 개입된 진영논리라면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국가의 미래를 짊어질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도 무조건적인 반대와 비난으로 일관해서는 안 된다. 여야를 막론하고 반도체 공장을 24시간 가동할 수 있도록 전력과 용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여, '민심 이반' 엄중히 받아들여야

집권 2년 차를 맞은 정부·여당이 위기를 맞고 있다. 63 지방선거 전까지 당 지지율을 견인했던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은 처음 과반이 붕괴되며 40%대를 기록했다. 당 지지율도 하락세다. 청와대 채신 인사도, 이 대통령이 다시 국정 전면에 나서도 효과가 예전만 같지 못하다는 평가다. 그럼에도 여권 내 계파 갈등 증폭으로 국민의 싸늘한 시선만 커지는 모습이다.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전주 대비 4.8% p 하락한 46.7%로 나타났다. 부정 평가는 전주 대비 5.5% p 상승한 49.7%로 오차범위 내에서 긍정 평가를 넘어서는 '데드크로스'가 나타났다.(리얼미터 22일 발표)

특히 정당 지지율은 여야 역전 현상이 나타났다. 여당 더불어민주당이 3주 연속 하락한 38%로 집계돼 10개월 만에 30%대로 추락했다. 반면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3주 연속 상승해 44.3%를 기록했다.

이는 여권이 봉착한 작금의 위기 상황을 드러낸다. 중도, 진보층이 여당 지지를 철회한 것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에 반사이익을 받은 현 정권에 대한 엄중한 경고로 봐야 한다. 당-청-당내 갈등과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한 실망, 부동산·주식 자산 양극화, 물가·환율 고공행진 등 민생 악재는 쌓여가고 있다. 이 같은 불신에 더해 지방 권력까지 장악한 정권의 독주에 대한 견제가 시작됐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상황임에도 8월 전당대회에서 민주당 차기 당권을 둘러싸고 계파 간 서로 비하하는 멸칭 대전도 고조되고 있다.

문·조·탈·래·유(문재인·조국·김여중·정청래·유시민)와 한·강·새·통·돼·주·길(한준호·강득구·김민석·이동형·방승인·김용민·이인주·송영길)로, 당원 간 상대 비하 수준이 선을 넘고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는 비판 여론이다. 과도한 비방전에 중도·합리층도 이탈 추세다. 여권은 민심 이반을 엄중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할 촉구한다.

거칠어지는 여당 권력투쟁... 누구를 위한 싸움?



스카이 View

김진강 정치·경제부장

더불어민주당 권력투쟁이 거칠어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곤두박질치는 엄중한 상황임에도 아랑곳하지 않는다. 집권 2년 차, 집권여당이 뜰뜰 뭉쳐 국정운영을 뒷받침해도 모자랄 판에 심지어 대통령과 당대표가 서로에게 각을 세우는 모습까지 연출됐다.

친명(親이재명)과 친청(親정청래)계가 서로에게 날을 세우며 '기선 잡기'에 여념이 없다. 상대 진영을 공개 저격하며 걸라치는 모습도 적지 않게 나타난다.

"진짜 전쟁 날 정도로 이러면 안 된다(박지원 의원)" "당의 분열과 반목을 차마 더는 지켜보기가 힘들다(우원식 의원)"며 당 원로들까지 나서 싸움을 말했지만, 거칠 대로 거칠어진 양측 간 전면전은 오히려 확산되는 양상이다.

오죽하면 국민의힘에서 "정권교체의 선

봉이자, 이정부 조기 레임덕의 선봉장인 정청래 대표의 재선을 응원한다(안철수 의원)"는 조롱과 비아냥까지 나올까 싶다.

50여 일 앞으로 다가온 8·17전당대회가 '통합과 비전'을 제시하는 정책 경쟁이 사라지고 계파 간 진흙탕 싸움으로 전개된 1차적인 책임은 정청래 전 대표에게 있다.

그는 63지방선거 다음날인 4일, 선거 결과에 대해 '민주당의 큰 승리'라며 야전인수(我田引水)식 평가를 내놓았다. 대구·경남 등 협에서 패배는 그렇다손 쳐도 '수도 서울 패배'라는 준엄한 민심의 경고를 그는 애써 외면했다. 더 나아가 분출하는 '지방선거 책임론'에 맞서 내뱉은 "정권은 짧다"라는 분풀이성 발언은 당청 갈등의 도화선이 됐고, 계파갈등의 불씨를 지웠다.

특히, 검찰의 보완수사권에 대해 '제한적으로 필요하다'는 이 대통령에 맞서 연일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이슈화하며 연임 가도의 디딤돌로 삼는 그의 행보는, 집권여당 대표로서 이재명 정부의 안정적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겠다는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들 정도다.

이에 대해 김영호 민주당 의원은 "보완수사권 문제는 당의 입장에서 너무 노

출시켜서 쟁점화시키는 것이 과연 당에 유리할까 싶다"며 "광장히 조용하게 개혁하는 것도 하나의 지혜"라고 지적했다.

당권 싸움과 갈등의 깊이가 더해질수록 이재명 정부의 국정 동력은 떨어지고 국가적 손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최근 여론조사 기관들이 이 대통령 국정지지를 하락의 원인으로 선거관리 부실 사태와 함께 여당 내 당권 갈등을 지목하고 있다.

청와대와 친명계도 언행에 신중해야 한다. 이 대통령의 유령순방 출국 당시 정 대표를 부르지 않은 것이나, 정 대표의 연임 포기를 압박하며 정 대표 지지층을 자극한 것은 갈등을 확대시키는 결과로 이어졌음이 분명하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 여부는 국민의 삶이 나아지느냐, 후퇴하느냐와 직결된다. 민주당 내 권력투쟁이 거칠어질수록 정부의 대내외적 위기관리 능력은 저하될 수밖에 없게 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이 된다.

국민은 여당 내부의 권력 게임 자체에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 지금이라도 민주당 두 달여 남은 전당대회가 경제민생안보 문제를 놓고 '비전'을 제시하며 경쟁하는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 kjk2156@skyledaily.com

스페셜리스트냐 제너럴리스트냐, 그것이 문제인가



최승목의 CEO 전략

'오십에 읽는 손자병법' 저자

세상이 빠르게 바뀌고 있다. 질문에 답하던 AI가 스스로 목표를 정하고 실행하는 시대다.

이런 변화 속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최근 "AI 시대에는 스페셜리스트보다 제너럴리스트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기술이 인간의 역할을 바꾸고 전문가의 지식마저 대중화되고 있는 지금, 과연 무엇이 경쟁력이 될까.

흔히 스페셜리스트와 제너럴리스트는 대립되는 개념이다. 하나를 깊게 파는 사람과 여러 분야를 넓게 아는 사람이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깊이 나 폭이나의 선택보다, 어떤 깊이를 가지고 어떤 폭으로 확장하느냐가 관건이다. AI라는 거대한 바다에서 깊이 없는 넓이는 금세 알아지고, 넓이 없는 깊이는 고립되기 쉽다. 한 분야를 충분히 파고든 사람이 다른 분야와 연결될 때 훨씬 더 경쟁력

이 생긴다.

이때 떠오르는 메타포가 바로 '담(wall)'이다. 사람은 저마다 자기만의 담을 쌓고 살아간다. 담이 있다는 것은 내 안에 축적된 무언가가 있다는 말이다. 담은 나와 타인의 경계이자 연결의 시작점이다. 담이 높아질수록 바깥세상을 향한 시야도 넓어져야 한다. 자기 기반을 지키되 그 담을 넘나들어야 새로운 길이 열린다. 이때 흔히 말하는 '통섭'은 타인의 담을 침범하는 것이 아니라 연결하는 일이다. 서로 다른 분야를 넘나드는 '통섭(通涉)'의 과정이 쌓일 때, 비로소 다양한 지식을 하나의 시각으로 아우르는 '통섭(統攝, consilience)'이 가능하다.

이날치의 음악이 좋은 예다. 판소리라는 전통 위에 현대적 리듬을 얹었고, 정통에서 벗어난 시도가 처음엔 낯설었지만 결국 더 넓은 무대로 이어졌다. 전통을 버린 것이 아니라, 전통을 충분히 이해했기에 가능한 변화였다. 통섭 역시 마찬가지다. 자기 분야를 깊이 이해할수록 다른 영역과의 연결도 힘을 얻는다. 그 연결의 출발점은 결국 나와 다른 세계를 기꺼이 받아들이는 태도에 있다.

시대가 바뀔 때마다 사람들은 하나의 정

답만을 찾으려 한다. 한때는 인문학적 소양이 중요하다고 했고, 한때는 기술과 코딩이 미래의 전부인 양 이야기했다. 어떤 시대에는 스페셜리스트가 경쟁력이라고 했고, 또 어떤 시대에는 제너럴리스트가 답이라고 했다. 선택 어느 한쪽의 손을 들어주기 쉽다. 지금의 기술 발전 속도가 전문성과 연결능력을 동시에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AI가 단 몇 초 만에 전문가 수준의 파편화된 지식을 쏟아내는 지금, 단순한 지식의 양은 더 이상 무기가 되지 못한다. 생각 없는 AI가 생산해 내는 무수한 데이터와 정보 속에서, 인간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그 지식을 연결하고 조율해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내는 '지휘력'이다.

결국 이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는 스페셜리스트와 제너럴리스트의 극단도 아니고, 적당히 절충한 사람도 아니다. 자신만의 고유한 깊이를 갖고 다른 영역과 연결할 줄 아는 사람이다. 깊이 없는 제너럴리스트는 위험하고 폭 없는 스페셜리스트는 고립될 것이다. 자기 담을 단단히 갖되 담장 너머의 새로운 길을 발견할 줄 아는 사람만이, AI시대의 다음 기회를 만들어 갈 것이다.

최태호의 맛있는 우리말. 향가(鄕歌)와 고려 가요(歌謠). 흔히 향가(鄕歌)라고 하면 '신라 시대의 노래'라고 정의한다. 사전에는 '신라 중기부터 고려 초기에 걸쳐 창작되고 유행했던 고유의 시가양식'이라고 나타나 있다. 어떤 사람들은 중국에 비해 시골에 해당하는 나라이므로 신라를 지칭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서라벌이라는 말의 의미가 '왕의 땅'이라는 의미가 있다. 왕이 다스리는 곳이라 중국과 대등한 관계에 있었던 나라임을 알 수 있다. 향가는 신라 시대에 발흥하여 고려 중기까지 부른 우리말 창작 시가를 이르는 말이다. 보통 향가를 신라 시대의 노래라고 하고, 가요를 고려시대의 노래라고 한다. 사실 향가가 융성했던 신라 시대에는 우리말이 발달했고, 우리말 창작 시가가 많이 있었는데, 고려시대에는 한문학의 융성으로 우리말 노래보다는 한문(한시)을 많이 썼다. 이두나 향찰, 구결 등의 글자가 있어 우리말을 기록하기에 어려움이 없었음에도 한문으로 기록한 작품이 훨씬 더 많다. 그래서 고려의 가요를 속요라고도 하고, 남녀상열지사(男女相悅之詞)라고 해서 조선 시대의 문집에 실리지 못했다. 그나마 남아 있는 것이 '만전춘'이나 '쌍화점'과 같은 노래인데, 공민왕이 애창곡이었기 때문에 살아남았(?) 수 있었다. 우리가 고전문학이라고 배우는 것들은 거의 노래 가사들이다. 중부대한국어학과 명예교수·한국어학회 회장

스카이데일리 SkyeDaily 발행·편집인 민경두 편집국장 주경준 주필 황종택 인쇄인 임채형 (주)스카이데일리 창간일자 2011년 9월 2일 등록일자 2011년 7월 18일 등록번호 서울가50131(일간신문) 등록번호 서울아01703(인터넷신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서울시 서초구 방배천로2안길 82 청송빌딩 34층 TEL. 02-522-6595 Fax 02-522-6597 홈페이지 www.skyedaily.com 구독료 1부 1,300원/월 20,000원/연 240,000원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서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외부 필진의 칼럼은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새 희망을 심겠습니다 스카이데일리 임직원 일동. Image showing hands holding a small plant, symbolizing hope and growth.